

水道) 시설등도 그 일조가 될 것이다. 다행히 새마을운동이후 농촌에서 는 전 농가의 83%가 하수구 개축, 공동목욕탕 16%, 57%가 간이급수 수도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획은 81년까지 모두 완성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 농촌의 생활환경은 크게 변화 발전케 될 것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들 모든 생활환경 개선도 그것을 통해 농촌의 보건·위생에 얼마나 이바지하게 되는가를 깨닫는 속에 더욱 축진케 될 것이다. 이제 농촌에서도 미신은 타파폐가고 있고 따라서 무당을 통한 원시종교적 치유방법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농촌에서도 무의총이 사라지고 모든 농민이 손쉽게, 값싸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제도가 마련되면 농촌의 질병은 한결 줄어들 것이며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위생관념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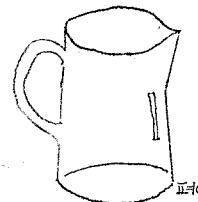
〈필자=이화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기생충 박멸 표어

새마을 건설은
기생충 구제 부터

약물의 남용 (濫用)

버릇



禹 泰 河

옛부터 우리나라에는 신비스러운 효능을 가진 영약(靈藥)과 묘약(妙藥)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였다. 그래서 최초로 넓은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秦始皇)도 거역할 수 없는 천수(天壽)를 연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제주도에 사신을 보내어 불노장생의 영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그 약을 다려먹기 이전에 놀이 죽었다는 얘기다. 이같이 우리나라를 천혜를 타고 난 좋은 약물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약을 숭배하고 절대시(絕對視)하는 경향이 있는듯하다. 다 죽어가던 사람도 약 한첩으로 거뜬히 치유가 되었다는 기적적인 얘기가 주



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약」하면 보약을 연상하게 되고, 떡으면 최소한도 안먹은 것보다는 좋은 것이란 인상들을 가지고 있다. 마을의 거리 거리마다 약방이 있어서 사탕한개 사먹는 것 만큼이나 손쉽게 약을 사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약이 즉『독(毒)』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약사들의 관점으로 볼 때엔 얼마나 소름끼치도록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모든 약들에게는 인체에 이로운 약리작용도 있는 반면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부작용도 있는 법이다. 아무리 사소한 부작용이라도 누적되고 침착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가공할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946년도부터 세상에 널리 사용되어진 페니실린은 그 초기에는 부작용이 없다가 1956년도부터 별별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즉각적인 쇼크로 손도 써보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 수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을 당황하게 만

◎ 1000자 상식 ◎

욕구 를만으로 생기는 맹장염

얼마전까지 단해도 저 의사는 맹장수술을 잘한다고 하던 명의(名醫)의 칭호를 얻은 것과 같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사들은 외과기술의 진보에 따라 맹장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항생물질의 등장으로 이병은 위험하지도 않은 병속에 포함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도 외과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내과질환중 발병률이 가장 높은 병이 맹장염이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는 맹장염은 외과의(外科醫)의 전방석이라는 말도 있다.

이처럼 잘 알려진 병이면서도 그 원인은 아직 확실치가 않다. 맹장염은 맹장그자체가 아니고 맹장꼴부분에 있는 들었다. 이러한 약의 부작용을 의원병(醫原病)이라 하여 최근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이병의 진단이 곤란하여 여간 능숙한 의사가 아니면 힘들게 되었다. 각가지 식품첨가물이나 진짜 보약으로서 혼히들 부용하는 종합비타민까지도 부작용을 일으켜 두두려기, 다형참출성홍반(多型滲出性紅斑), 알레르기성혈관염(血管炎), 자반증 등을 일으키는 판국이

손가락만한 크기의 충수(虫垂)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충수염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왜 염증이 생기는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장이나 폐 속의 세균이 충수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 다음은 세균에 의하지 않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맹장염의 유인(誘因)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폭음폭식이나 과로가 충수를 느려지게 만들어 세균의 활동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최근에는 맹장염의 발병에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고 본다. 이 주장에 따르면 폭음폭식 30%, 과로 38%, 기타 32%의 맹장염 유인 전부에 대하여 발병 전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는 심인성(心因性)이 있는 것이 50%나 되었다. 이러한 심리 상태의 내용에 관하여 심각한 감정은 비교적 적고 오히려 작업이나 직장의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나 외국에서 종합비타민류 까지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복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의권신장(醫權伸張)이라는 생각을 떠나 국민건강을 위해 심각하게 거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기생충박멸협회의 청탁으로 인한 이 글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기생충이 여타 세균보다 고등의 진화된 생물이므로 기생충 약은 일반적으로 다른 항생제나 기타 약물보

우구가 충분히 체워지지 않으면 불안이나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 이러한 우구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여 의식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결국은 무의식적으로 마음가운데 숨어 버린다. 그러나 억압된 우구는 그대로 있어 서는 아니라 활화산처럼 언젠가는 의식의 표면으로 뛰어 나오려는 애네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애네르기를 정신분석에서는 심적(心的)애네르기라 한다.

마음밑바닥에 숨어있던 우구가 표면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면 그 애네르기가 역류하여 신체의 여러 부분에 전환(轉換) 또는 기관언어(器官言語)의 반응을 일으킨다. 말로서 나타낼 수 없는 마음의 큐브레스를 신체의 기관이 대신 나타내는 것을 기관언어라고 하는데 이에는 히스테리성 손발마비, 경련, 심장이나 위장증상이 있다. 기관언어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곧 회복되나 때로는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질적변화를 일으키는 수도 있다.

다 더 인간에게 독성이 를 수 있으며 기생충감사 등으로 감염여부를 확진하지도 않고 짐작만으로 약을 복용한다 든지 더우기 투탕식으로 일년에 몇 차례 약을 복용한다는 방법은 당장은 편리한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꼭 시정되어야 할 위험천만한 방법인 것이다. 약의 독성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의원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필자=연세의대 피부과 교수·의학박사〉